

39장 바벨론의 시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도 물리치고 병도 나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민족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대하여서도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지 않고 다만 자기를 낮추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였던 히스기야는 넘어졌다. 므로닥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대신에 자기 왕궁의 모든 보화를 보여 주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였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그러한 행위가 작은 것이 아님을 지적하시고,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자녀는 환관이 되며 이스라엘의 보물도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다’ 하고, 덧붙여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였다(39:8). 사실 이 표현은 앞서 38:3에서 그가 병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비슷하다. 따라서 39:8의 이 구절은 자기 당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심판을 시행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와 선하심에 의지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8-39장의 이야기는 36-37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앗수르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후에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러한 구성으로 보면, 40장 이후로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예언들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앗수르와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쓰고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역사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임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구원을 이러한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39장 익힘 문제

1.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듣고 예물을 보낸 바벨론 왕은 누구입니까? (1절)
2. 1)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책망하였습니까? (2, 4절)
2) 그 잘못으로 인해 그 소유들이 다 어디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7절)